

흑두루미로 맺은 인연...순천정원박람회 '일본 이즈미시의 날'

순천과 자매도시 '일본 이즈미시' 시장 일행 방문 노관규 순천시장 "지자체 간 교류 중요한 시대" 사이노키 신이치 이즈미시장 "순천시 도움 커"

순천시와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이즈미시(시장 사이노키 신이치)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만나 '국가의 날' 행사를 가졌다.

14일 순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노관규 순천시장과 일본 사이노키 신이치 이즈미시장이 만나 자매도시 간 우의를 다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러 국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이즈미시의 날인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금 세계는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순천과 이즈미시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로 인연을 맺은 만큼 지구

상에 두루미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끌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가길 희망한다"며 이즈미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국가의 날을 맞이해 벌써 세 번째 순천을 방문한 이즈미시의 사이노키 신이치 시장은 "노관규 시장의 따뜻한 배려로 이즈미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도시 순천이 10년 만에 다시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새로운 도전을 실현한 것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즈미시의 두루미 월동지가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록되고, 이즈미시가 람사르 협약 인증 지자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순천시의 도움이 컸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즈미시는 지난 4월 순천에 정원박람회 성

공 개최를 염원하는 서한문을 보내온 데 이어, 국가의 날 행사를 맞아 일본 전통공연단(와라쿠)을 파견해 이즈미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일본 전통복(타이코) 공연을 선보였다.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진 이즈미시는 순천시와 2009년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 교류를 이어왔다.

두 도시 간의 인연은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선 4기 재임 당시 이즈미시를 방문한 데서 시작했다.

이즈미시에서 흑두루미 폐사의 주된 원인이 전봇대라는 것을 들은 노 시장이 과감히 순천만 일대의 전봇대 282개를 뽑은 결과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하는 모델이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원박람회조직위는 10월까지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일본 이즈미시의 날을 비롯해 세계 14개국, 17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가의 날' 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를 선보일 계획



전남 순천시장과 일본 이즈미 시장이 공연단과 사진촬영 하고 있다. (조직위 제공)

이다. 한편 13일 오후 정원박람회장에서 충남 태안군의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14일은 전

남 담양군이 참여해 '이날치 줄타기 연희한마당' 전통 공연을 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휴식과 치유 숲에서 교직원 직무교육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 특수분야 교육 시작

보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에서 전국 교사 및 교육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은 차(茶)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이란 주제로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총 180여 명의 교육생을 6기로 나눠 30여 명씩 1박 2일 동안 진행하며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하반기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환경 교육(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茶)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및 심신 안정 교육, △목공예

(우드버닝) 체험, △족욕 체험, △차와 산림의 만남, △차밭 힐링 투어(차잎 따기, 차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대전 모 초등학교 선생님은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당면한 우리 미래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생태 환경 교육에 더욱 힘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 및 대학교 MT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여 개 팀 4천5백여 명이 예약했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군,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공모

7월 14일까지, 간호·봉사부문

고흥군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나눔과 섬김의 봉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후보자를 7월 14일까지 추천 공모한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

역 사회에 헌신·봉사한 자로 간호 부문과 봉사 부문으로 나눠 1명씩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작년보다 2배 증액한 4000만 원(부문별 2000만 원)이다.

추천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20세 이상으로서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시상식에서 봉사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분이 봉사 대상 추천을 계기로 그동안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 자원봉사 참여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선소대교 운행 시내버스 노선 신설

오늘부터 85번 운행...소호·죽림·무선방면 학생 등하교 등 시민 교통편의 증진



여수시는 오는 16일부터 선소대교를 운행하는 85번 노선을 신설 운행한다.

신설된 85번은 화장동차고지→죽림지구→부영여고→장성마을→선소대교→웅천지웰 A→웅천포레나A를 경유하는 순환형으로 운행된다. 1일 9회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90~120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웅천-소호간 선소대교 개통 이후 자가용 차량의 통행시간은 줄었으나,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시내버스 운행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로써 웅천지구에서 소호, 죽림, 무선방면 통학 학생 등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태터널로를 우회함으로써 과다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하하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